



논평

수입축산물 공습, 소비자 권리 스스로 찾아야

수입축산물 공습 소비자 권리 스스로 찾아야...

글 편집부

AI 발생으로 오리업계 막대한 피해, 금년 수급상황 악화로 수입금지 예상돼

지난해 말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구제역과 AI로 지금 축산업계는 사상 최대의 피해를 기록하며 국내 축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첫 발생 이후 2~3달 만에 AI는 발생 40여건에 가금류 매몰처리 두수만 540여만수, 구제역은 발생 140여건 매몰처리 두수 300여만수에 달해 축산업계는 순식간에 생지옥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그 중에서도 오리업계의 피해는 심각하다. 국내 오리산업의 거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전남 지역의 AI 발생으로 지역 일대의 오리사육농가와 종란을 생산하는 종오리 농가의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국내 종오리 사육수수가 크게 줄면서 금년 육용오리 수급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의 종오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실제로 현재 오리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0년 수요 대비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대만, 중국 등 동남아산 저가의 수입 오리육이 대거 수입되어 전 오리업계를 긴장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가 시행된 것은 (2010. 8. 11 기준) 다행이기는 하지만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상황 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감 역시 커져가고 있다.

우리 오리업계는 밀려오는 수입 오리고기의 공습에 철저

히 대응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제도 홍보, 인증제 사업 실시, 명예감시단과 연계한 유통감시단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정부 역시 원산지표시제와 함께 올해부터 본격 실시하고 있는 가금육 포장유통의 무화 제도 안착을 위해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산되는 국내산 오리고기 에 비해 동남아 등지에서 수입해 오는 오리고기는 국내산 대비 가격이 1/2~1/3에 불과하지만 항생제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어떤 사료를 먹여 어떻게 키운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실제로 지난 2008년과 2009년 중국산 훈제 오리고기에서 가족에 사용이 금지된 항생물질인 '클로람페니콜' 이 검출돼 전량 반송시킨 예가 있다.

현재 중국산 가금육이 열처리 완료 제품만 수입됨에도 이러한 물질이 검출된다는 것은 생육 수입금지조치가 해제될 경우 이보다 더 함량이 높거나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는 생육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오리고기 수입량이 증가함으로써 국내산으로 둔갑해 2~3배 가격을 받거나 품질이나 안전성 면에서 결함이 있는 수입산 오리고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올 2011년은 AI와 구제역 사태로 인해 축산물 전체의 수급상황이 악화돼 오리를 비롯해 닭, 소, 돼지 등 상당량의 축산물이 수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협회나 정부가 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정책, 제도적으로 힘쓰는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 스스로 항상 축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허위 원산지 표기 제품은 솔선하여 신고하는 것만이 밀려드는 수입 축산물로부터 우리 축산물을 지키고 소비자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란다.